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7

“우리도 함께 뛰다”

건보공단 광주북부지사

질병 고통없는 세상질주 “국민건강 우리가 지킨다”

“이번 대회 완주를 통해 국민건강 파수꾼의 견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지사장 주인철) 마라톤 동호회의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 출사표이다.

43명 모두 완주 목표

“우리가 건강해야 국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06년 4월 첫모임을 가진 이들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43명 모두가 완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마라톤 동호회는 매주 수요일 광주천변을 달리며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도 단련해왔다.

마라톤 입문 6년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영출 차장은 풀코스 10회, 울트라마라톤 2회 완주한 매니아로서 동호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고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마라톤이 절약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며 마라톤의 장점을 강조한다.

급여관리팀 정진 대리로 마라톤 애호가로서 이번 대회 10km에 출전, 35분대 기록으로 우승을 노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 능력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지난 2007년 공기업 평가결과 15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해 ‘국민의 평생 건강을 다지는 기관’ 다운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평소 ‘서민들이 병원비 때문에 질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사회 안전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를위

광주천 뛰며 체력 단련

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료를 동결했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와 척추질환자에 대한 MRI 보험적용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있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



“국민건강 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직원들이 이번 대회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니평주기자 mjna@kwangju.co.kr

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 노인인구의 4.4%인 23만명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강증진센터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영양사·운동처방사들이 기초체력·의학상담·영양처방과 개인별 운동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무료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는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 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 서고 있다.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여육원을 정기적

으로 방문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주 반찬을 제공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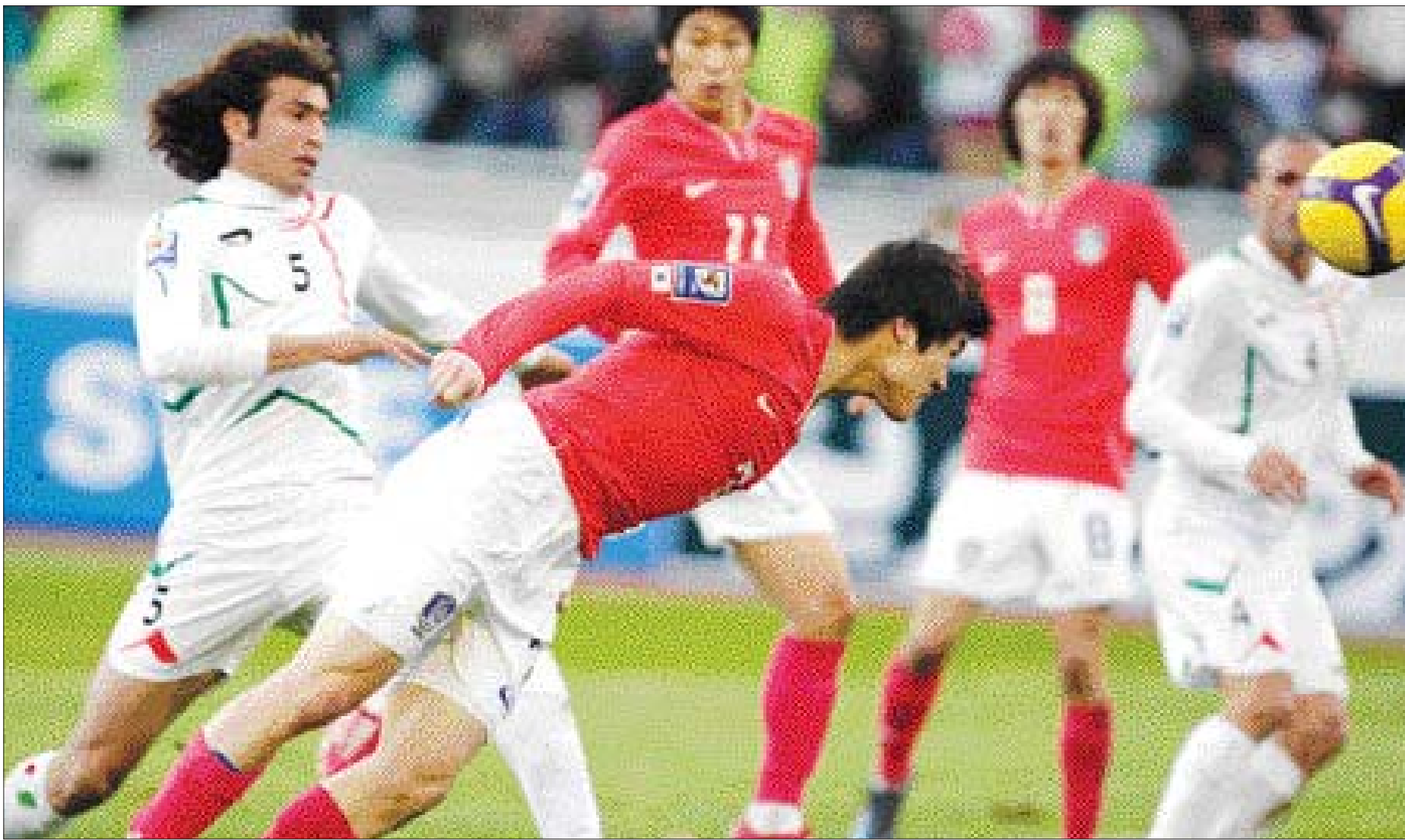
국민건강과 이웃 사랑에 구슬땀을 흘려온 광주북부지사가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박지성 동점골... 이란과 무승부

北 ‘사우디 징크스’ 꺾다

26년만에 1대0 제압... 승점 7로 조 2위



박지성이 11일 테헤란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년남아프리카월드컵 아시아예선 한국 대 이란전에서 헤딩 동점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표 최종 예선 1-1 한국 2승2무 조 선두 지켜

‘캡틴’ 박지성의 머리가 승점 1점을 지켰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B조 최종예선 4차전에서 박지성의 친금 같은 동점골에 힘입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해발 1천m가 넘는 고지대 환경과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9만여 이란 홈팬들의 소음 속에서도 한국은 전반전 공세 수위를 높이며 이란을 압박했다.

전반 38분 기성용이 오른쪽 미드필드 지역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기습적인 오

른발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 메디 라마티가 간신히 편칭으로 막아냈다. 전반 42분에는 정성훈과 교체해 들어간 염기훈이 오른쪽 미드필드 지역에서 대포알 같은 왼발 중거리 리포를 날려 골키퍼 라마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하지만 포문은 이란이 먼저 열었다. 후반 13분 이란의 호세인 카에비가 김정우의 파울로 왼쪽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자바드 네쿠람이 오른발로 감아찬 공은 수비벽 위로 날아가 왼쪽 골문 상단을 꿰뚫었다.

0-1로 끌려가던 후반 35분 기성용과 박지

성이 합작한 동점골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성용의 오른발 프리킥이 상대 골키퍼 손과 맞고 흘러나오자 박지성이 문전으로 쇄도해 몸을 날리며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10월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최종예선 2차전 홈경기 4-1 완승 때 결승골을 터뜨렸던 박지성은 4개월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며 개인통산 10호 골을 장식했다.

박지성은 3분 뒤 박주영(AS 모나코)과 임무를 교체하고 그라운드를 내려갔고 양팀은 공방을 이어갔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이날 무승부로 한국은 승점 1점을 추가, 2승2무(승점 8)로 B조 선두를 지켰다. 반면 이란은 1승3무(승점 6)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1승을 추가한 북한(2승1무1패, 승점 7)에 2위를 내주며 3위로 밀렸다.

험난한 원정길에 나선 한국은 이날 무승부로 역대 A매치 상대전적 8승6무8패의 호각세를 유지했다. 지난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0-2 패배부터 35년 동안 이란 원정에서 1무2패만을 기록했던 ‘무승 징크스’ 탈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2007년 11월 출발전 허정무호는 첫 평가전 상대였던 칠레에 0-1로 덜미를 잡히고 나서 19경기 연속 무패(8승10무1패) 행진을 이어간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다.

한편 허정무호는 오는 4월1일 북한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연합뉴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6위 북한 축구가 ‘난적’ 사우디아라비아(53위)를 무려 26년 2개월여 만에 제압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한국과 비진 이란을 제치고 조 2위로 올라섰다.

북한은 11일 오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치러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4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 홈경기에서 전반 29분 81살의 노장 공격수 문인국(4.25체육단)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982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치러진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에서 2-2로 비긴 이후 이어진 역대 전적 3무3패의 열세에서 벗어나면서 ‘사우디 징크스’를 끝냈다.

특히 북한은 최종예선 B조에서 2승1무1패(승점 7, 골득실+1)를 기록하면서 이날 저녁 치러진 한국-이란전에서 한국이 이기

면 조 2위로 뛰어오른다. 북한의 뛰어난 기동력과 투지가 돋보인 승부였다. 정대세(가와사키)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문인국과 홍영조(로스토프)를 배후에 투입해 사우디의 수비벽을 강하게 압박한 북한은 역습과 함께 상대 공세가 이어질 때 최대 6명의 수비라인을 가동하는 ‘철벽 수비’로 골을 노렸다.

전반 16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정대세의 왼발 터닝슛을 시작으로 공격의 포문을 연 북한은 오른쪽 측면 오른쪽 윙백 차정혁(압록강체육단)의 오버래핑을 앞세워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의 흥영조는 전반 29분 페널티 아크 정면 부근에서 오른발 힐 패스로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돌파한 문인국에게 기막히게 볼을 내줬다. 순간 당황한 사우디의 수비수 알타케트 칼레드가 헛발질을 했고, 문인국이 볼을 잡아 강한 오른발 슛으로 골 그물을 강하게 흔들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호남 더비’

히딩크, 첼시 사령탑도 맡는다

전남-전북 28일 대결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와 전북 현대가 28일 오후2시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호남 더비’를 갖는다.

전남과 전북은 K-리그 활성화와 볼 조성 그리고 호남 지역 구단의 우호 증진을 위해 K-리그 개막에 앞서 ‘호남 더비’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팀은 호남 매치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매년 전남과 전북을 오가며 대회가 열리게 되면서 내년대회는 전남에서 개최된다.

이날 경기에서는 3월7일 2009 K리그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박항서 감독과 전북 최강희 감독의 시즌 구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올 시즌 새로 영입된 전남의 안호연, 김영철, 정운성, 김승현, 이정열과 전북 이동국 등도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한편 전북은 축구 활성화와 볼 조성을 위해 VIP석과 특별석을 제외한 좌석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자물 입장요금을 모아 수익금 전액을 축구 발전 기금으로 쓸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거스 히딩크(63)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첼시의 사령탑까지 겸임하는 ‘투잡’을 하게 됐다. 터키에서 러시아 대표팀 전지훈련을 지휘하는 히딩크 감독은 11일(한국

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첼시가 아닌 다른 구단이 있었다면 노(No)라고 대답했겠지만 구단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가능한 한 첼시를 돕고 싶다”며 사실상 첼시 감독직을 수락했다.

러시아축구협회도 대표팀을 계속 지휘하는 것을 조건으로 첼시 사령탑 겸임을 허용했다. 첼시는 최근 성적 부진에 책임을 물어 지난해 6월 지휘봉을 잡았던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을 해임하고 새 사령탑을 찾아왔다. 첼시는 이번 시즌 14승7무4패(승점 49)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56)와 리버풀(승점 54), 아스톤 빌라(승점 51)에 이어 4위로 밀려 있다.

/연합뉴스